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6

2016. 7.10

- 창립 28주년 기념호 -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
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1-3)

오늘의 주요기사

- 2 교구수련회
- 3 성경바로읽기
- 4 비전트립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
- 5 목회칼럼
- 6 창립기념음악회, 임직식
- 7 임직자 소개
- 8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 | |
|----------|-----------|
| 7/10(주일) | 정기당회 |
| 7/13(수) | 2/4분기 제직회 |
| 8/7(주일) | 성찬주일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음악회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습니다!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습니다!

28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생명들을 구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기위해 세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28년 역사 동안 어느 한 주도 이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맡은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고,
생명을 헌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터전은 진정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웠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공급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인 무리도 지극히 작았고, 가진 것도 없었고
게다가 거친 바람도 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참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교구 수련회

빛속의 은혜 - 2,3교구 수련회

7월1일~2일에 2~3교구 수련회가 진 새골 사랑의집에서 진행되었다. 간 절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준비 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은 하늘로 스텝들의 마음이 걱정 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속도를 내며 굵어지기 시작했고 드 디어 장대비를 쏟아내며 예배당 문 앞까지 들이칠 기세였다. 오~주님! 참가비도 후불이어서 안심이 안 되 는데 이런 날씨를 핑계로 취소하고 안 오는 성도들이 많으면 어찌죠? 스텝보다 목사님 표정은 더욱 애가 타 보였다. 성도들과 아이들을 가득 태운 2대의 버스와, 승용차로 도착 해 장대비를 맞으며 들어서는 사람 들이 얼마나 반갑던지!

레크리에이션과 저녁식사에 이어 청년부 밴드의 진행으로 부르는 찬 양은 빛소리와 어우러졌다. 감사 목 사님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 가?”라는 말씀으로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

다. 영성을 깨우고 영혼을 어루만지 는 은혜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 는 예배를 마치고 수고해주신 손길 을 통해 직접 만든 도토리묵과 감자 로 야식을 즐기며 꽃피우는 대화들 은 칠하같이 어두운 시골 밤을 환하 게 비추었다. 이슬비로 바뀐 상쾌한 아침을 새벽기도로 시작하였고 맛 있는 떡국으로 조식을 먹은 뒤 다시 어제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예배 당. 아침집회의 말씀은 “새날을 살 아가는 공동체란” 주제로 시작하였 고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내야 한 다는 울림으로 말씀을 마치셨다.

수련회를 하기엔 힘든 날씨였지만 성전을 채우며 달려오신 모든 성도 들께 감사하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 해주신 모든 분들과 2~3교구 식구 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과 땅 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 으며 인도해주신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봉순 집사



교구수련회

일상에 감사 - 6,7교구 수련회

청평 자연휴양림으로 6.7교구가 연합 하여 수련회를 갖게 되어 교구식구들 과 교제하고 더욱 친숙해진 시간이었 다. 또한 교회의 큰 행사를 위해 뒤에 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하게 되었다. 오후부터 퍼붓는 장 마 빛속에서도 교우들은 섬기는 마음 에 하나 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이 전 해져 하나님의 자녀 됨을 감사했다. 강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지금, 오늘 과 일상에 감사해야 함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또한 나의 삶이 얼마나 예배

가 되고 기도가 되었는가를 돌이켜 보 았다. 비 개인 다음날 창조주 하나님 이 지으신 이 땅의 풀, 물, 나무, 꽃들 과 교감하며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저 절로 나왔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긍 흘과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마음에 다 시 한번 다져 보았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교회 성도됨을 감사드리 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6.7교구 각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 망해 본다.

박동선 집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0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沒藥(몰약. myrrh)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 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출애굽기 30 장 23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 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 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 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로 싼더라(요한복음 19장 39~40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감람과에 속하는 灌木(관목)인 발삼 (balsam)나무에서 얻어진 방향성 나무 진으로 향품과 의약품과 시체의 방부 제로 사용했다. 발삼나무는 겹엽으 로 되어있고 네 잎의 꽃이 피는데 아 라비아와 아프리카에 퍼져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왕의 모든 옷에 몰 약의 향기가 있 다는 것은 왕의 고상한 인격과 성품이 사람들 사이에 은은히 드러남을 나 타낸다. 또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비유한 표 현이다. 한편 몰 약과 침향. 육계는 성막 물품들을 거룩히 구별할 때 사 용되기도 했고 침실 등을 향기롭게

꾸미기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동방 박사의 예물 중 몰 약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 한 것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沒(빠질 물. 죽을 물): 액체의 총칭인 水(물 수)의 변형체 𣎵(삼수 변)과 사람 이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모양의 𣎵(사 라질)을 합쳐【물에서 사라졌으니 빠 져 죽은 것이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藥(약 약): “식물”을 상징하는 艸(풀 초)의 변형체 𣎵(초두머리)에 樂(즐거 울락. 노래 약. 좋아할 요)을 결합시켜 【식물을 다려먹고 병이 나아 즐거워 졌으니 이는 약이다】라는 의미가 되 었다. 이는 약초의 효용성을 강조한 글자이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3



장마가 오기 전에 가을꽃을 심습 니다. 작은 백일홍 모종도 심습니 다. 환우들이 바라볼 마지막일지 모를 꽃들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 백일홍은 백일을 가듯이 그 분들 은 그 꽃을 보며 백일을 세어 보겠 지요. (춘천호스피스에서)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성경 바로 읽기 |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서 ❹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

첫 번째 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글에서 은유란 무엇이며 성경의 뿌리-은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유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은유와 비유 가운데 좀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유형을 셸리 맥페이그가 ‘모델’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여러 은유 모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을 ‘뿌리-은유’라고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뿌리-은유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상의 권세와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은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마가복음 4:11~13)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비유의 근본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표현된 적이 없고,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암시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나라’와 ‘통치’라는 군주적이고 위계적인 은유의 관습적인 이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와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소외된 사람들과 권력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 죄인들을 대립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는, 가장 비참한 형틀에 매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가치와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을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만 들어내는 긴장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 종교의 구조, 결혼, 재물, 민족주의에 대한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인 관행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성취가 아니라 현재를 개조하는 대안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현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보루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악한 방식과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현상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해 강행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속적 가치와 질서와 도덕에 대해 긴장 관계를 가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령을 위협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와 관행에 민감하여야 하고, 예수님처럼 긴장해야 하며, 실천적으로 이 세속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줄함줄

교구수련회

의미있는 동행 - 8,9교구 수련회



지난 주말 우리 8,9교구 가족들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짧은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130여명의 교우들이 모임을 진행한 수도원 내 ‘다락방채플’은 주위가 온통 짙은 녹음으로 둘러싸인 대단히 아름다운 채플이었다. 먼저 담임목사님의 귀한 말씀의 여

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훈련, 집회와 기도회, 목사님들의 강의, 레크리에이션과 말씀찾기, 묵상과 쉼 등 여러 순서가 있었다.

첫날 저녁 ‘아름다운 동행’이란 제하에 말씀을 전해 주신 박상학 목사님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팠던 과거 아버지와의 과거사와 가족들의 아픔 등을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네 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기르고 있는 목사님의 삶 자체가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날은 먼저 정창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사’에 대해 강의해 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이어서 홍성욱 목사님의 효율적인 대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기초적인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의 일단을 배울 수 있었다.

공동체훈련과 묵상 등 그 밖의 다른 순서들도 참으로 재미있고 유익하였으며, 식사와 숙소 환경도 상당

히 만족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는 개인당 1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우리는 숙소를 다인실로 이용하고 간식을 줄이는 것 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회비 전액과 후원금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국내 유일한 소아조로 증 환우인 홍원기 어린이의 가족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하는 의미 있는 동행을 하기로 하였다. 수련회 주제처럼 ‘사명을 품은 겨자씨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여겨진다.

이번 수련회는 실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내년에도 꼭 같은 감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찬귀 안수집사

해외선교

비전트립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교회는 해외선교를 위해 베트남, 키르키스탄, 코스타리카 및 헝가리에 파송선교사를, 이스라엘, 케냐 등의 지역에 5명의 협력선교사를, 그리고 1명의 견습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파송선교사 지역에는 해마다 혹은 격년으로 해외선교분과 주관으로 해외선교 비전트립팀을 파송하고 있다.

2016년에는 베트남(2016.8.3~8.8)과 키르키스탄(2016.7.31~8.8)으로 비전트립팀을 파송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코스타리카와 케냐는 지카바이러스와 안전 등의 사유로 취소되었다.

비전트립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간단하지 않지만 적어도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비전트립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파송선교사의 사역지에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 선교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선교사가 파송지역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제약으로 평소에 하지 못하던 사역을 비전트립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활동을 해외선교지에서 하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일부 성도들은 비전트립이 그냥 선교지를 둘러보고 오는 것이어서 교회의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교회의 예산

으로 소수의 성도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전트립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지체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섬기는 자기희생과 헌신이다.

금년에 파송될 베트남팀은 의료선교와 집짓기 사역, 고아원 방문, 그리고 교과서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우리 교회 겨자씨가 후원하는 베트남 남부총회 소속 교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의료선교의 경우, 작년에 선풍기도 없는 장소에서 내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초음파기를 사용하는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으로 연 5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지어 주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만큼 빠듯한 일정이었다. 집짓기 사역은 3채의 집을 지어주고 각 송아지한마리씩을 기증하는 것이다. 건축의 마지막 단계인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다. 찌는듯한 열대지방의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와 얼굴과 옷에 페인트가 범벅이 되도록 열심히 한다. 교과서와 학용품 그리고 축구공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할 때에도 감동이 있다. 어떤 지역은 빈곤하여 교과서를 선풍기부터 물려받아 몇 대에 걸쳐 사용하여 이제는 헤어져 너털너털한 책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없는 경우 그냥 책이 없는 채로 공부한다. 이런 지역의 200여명의 학생에게 교과서를 선물하고, 그 교

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리더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후원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꼭 전해 주고 싶어진다.

우리 겨자씨 헌금으로 지원하는 작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의 감동도 진하다. 조그마한 교회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참새처럼 재잘거리다가, 선물에 환성을 지르고, 찬양을 한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교회의 지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키르키스탄에서의 비전트립은 주로 케이팝, 한국요리, 무용과 수공예 등의 문화사역과 치 위생 사역 등을 한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키르키스탄은 유일하게 평신도인 윤바나바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주로 태권도를 통해 선교활동을 하고 사모는 치 위생 사업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선교하기가 위험하고 쉽지 않지만 이제 그 선교의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 감동은 다르지 않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감동이 밀려온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실감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팀이 뜨겁게 하나 되는 순간이고, 돌

아와 해외선교를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섬기게 된다.

이 지면을 빌려, 비전트립을 재정적으로 또는 물품으로 후원하거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년에는 257명의 성도와 여전도회 등의 단체가 후원에 참여하였고 금액은 약 사천이백만원에 이른다. 작년보다 30% 증가된 금액이며, 선교사들이 요청한 목표액의 97%에 이른다. 이렇게 후원된 후원금과 물품은 교회의 예산과 함께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인들이 헌금한 예산과 후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며 헌금이나 후원을 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김을 경험한다.

비전트립은 부르심을 입은 지체가 직접 참여하고 여건상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은 헌금으로 후원하거나, 기도로 중보함으로써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귀중한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의 예산이나 비전트립 후원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것임을 해외선교분과에서 약속드린다.

해외선교분과 박중순 장로



베트남에서 교과서 전달



의료선교를 기다리는 베트남 주민들

창립 28주년

기념 음악회



주님의교회 창립 28주년을 기념하여 6월 22일 호산나 찬양대의 주관의 음악회가 정신여고 노래선교단과 주님의교회 연합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열렸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말씀이 있는 후에 호산나찬양대의 찬양, 트롬본 연주와 바이올린 독주, 정신여고 노래선

교단의 찬양과 율동이 이어졌다. 호산나 찬양대는 104명의 단원이 1부예배 찬양을 헌신하고 있다.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은 1969년에 창단되어 창설 당시부터 방송국, 학교 방문과 음악회, 교도소, 군부대 위문과 교회 연주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함글함글**

창립 28주년

임직식



창립 28주년을 맞은 6월 23일 3부예배에 임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장로 5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17명 등 40명이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안수를 받았다. 2015년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어 지난

1년간 피택자교육을 마쳤으며, 이날 안수를 받음으로써 항존직의 역할을 하게 된 임직자들은 앞으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함글함글**

장로임직 소감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주님, 왜 저를 주님의교회 임직자로 부르셨나요? 지난 6개월 교육기간 동안에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의 영적 무지와 기도의 부족 때문이겠지요. 10년 전에 저를 주님의교회에서 백주년기념교회로 막 내모셨죠? 그 때의 이유는 저도 분명히 압니다.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큰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려는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곳에서 합정동 불우이웃을 위한 새로운 의료봉사 시스템을 만들고 막 재미나게 시작하려했던 저를 다시 주님의교회로 불러들이신 것도 주님이셨지요? 그리고 찬양대, 의료선교부, 동시통역팀, 중보기도부, 주차안내부를 섬기도록 만드신 것도 주님이시구요. 그런데 교회의 한 부서도 신실하게 섬기지도 못한, 부족한 저에게 왜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는지요? 이제는 제가 주님만을 쳐다보며,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며,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 제가 어떻게 살면 기쁘시겠습니까, 왜 저를? **서준규 장로**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23년 전 건강 문제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저에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 되는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늘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장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정식 장로**

새로운 섬김의 옷 입고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고백과 다짐을 쓰고자 합니다. 저에게 장로 임직은 또 다른 탄생입니다. 새롭게 섬김의 옷을 덧입혀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손길에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령을 깨뜨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너 무엇을 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숙이 새깁니다. 에벤에셀 주님! 지금까지 저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주님 인도하심으로 기적 같은 삶이었고 오로지 빛진 자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할 것을 소망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모두를

가슴에 품고 가기를 다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늘 소통하며 함글함글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과 지혜가 넘치게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과 격려해 주실 것을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성준 장로**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임직식은 제게 한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는 동안에도, 주님은 다른 분들 안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은 인간이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겸손을 배우고 교회와 여러 분들을 섬기는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낍니다. 더 붙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용환 장로**

목회칼럼

일상에서의 영성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단 6:10)

내가 목사로써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마치 목사는 작전본부에서 명령만 내리고 성도들은 실전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운다는 생각이 들 때다. 세상경험이 짧은 목사들이 가지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고, 졸업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가 목회 현장으로 바로 나왔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그 누군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건 간접경험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잘 모르니, 설교도 공허한 울림이 될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안그래도 세상에서 수많은 짐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적 의무까지 더 얹어준 것 같아 미안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문득 다니엘 생각이 났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당시 절대권력을 가졌던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그는 왜 기도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 습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하지만 그날 아침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가 다리오 왕의 칙령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 기도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삶의 상황 때문이었으리라.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모, 술수가 난무한 고대 왕국 속에서 한갓 노예출신의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

적들이 그를 음해하려고 했겠는가? 눈뜨고 출근하면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있는 적들과 마주쳐야 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하는 삶의 절박한 상황을 매 순간 경험해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어서도, 남들보다 뛰어난 결단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매순간 싸워 이겨내야 하는 일상적 삶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아내는 IVF라는 선교단체 출신이다. 나 또한 선교단체 출신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얼마나 거창한 대의명분(?)을 갖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일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 대학

때 가졌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일상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가치가 마치 다리오 왕처럼 득세하는 세상이다.

누구나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 것을 요구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릴 적 들던,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다니엘의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평범한 한 인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아침이다.

임창진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3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1)

정신여학교 이사회 조직의 의미



기숙사 식당

한국이 일제의 강점기에 들어서자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일제의 내선 일체 교육에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회의적이 되었다. 거기에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교육비가 감소하게 되었다. 1930년 미국경제공황으로 교육비 예산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학교는 설상가상 정규학교로 되지 못하고 각종학교가 되면서 입학생들이 수도 줄어들어 더욱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한국의 학교사업을 인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역의 노회와 동문들은 학교를 유지시켜주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학교와 미북장로회선교부의 의견을 연결해주는 것은 한국선교부 총회에서 담당했다. 미북장로회선교부가 하던 학교 지원을 학교 이사회가 함께 맡는 것으로 합의하여 1929년 정신여학교 이

사회가 조직되었다. 이사회는 교장 1명, 경기노회 3명, 서울 선교지부 3명, 동창회 3명 합 10명으로 노회 및 서울 선교지부가 과반수를 넘었다. 이것은 미북장로회선교부가 한국선교부를 통해 학교를 직접 운영하던 것을 경기노회와 동창회가 학교의 예산, 교원의 임면 등 학교 경영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이사회가 조직되자마자 경기노회는 그해 정신여학교에 1천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가 조직되고 '학교의 유지와 관리에 이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항)는 정관 의 조항으로 후에 학교 인계 과정에서 미북장로회 선교부가 마음대로 학교를 폐교하지 못한 근거가 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임직자 소개

주님께 헌신하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6월 26일 3부예배에서, 신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40명의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작년 10월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어, 지난 1년간 피택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 날 안수를 받았다.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신임 항존직을 소개한다. (가나다 순)

■ 장로



강석인



서준규



유정식



이성준



황용환

■ 안수집사



김진원



김천식



반철수



복향수



신성식



안정수



이성욱



이일묵



이재홍



이정식



장경식



장수호



장순욱



정낙영



정성권



천인성



최명철



지태정

■ 권사



강선희



강희정



고경임



길근주



김경미



김경희



김원미



김정애



김진희



목기숙



손태항



오선희



원인숙



유현숙



최미현



최영순



최재춘

교회 단신

결혼예비학교



지난 6월 12일 주일 오후 4시,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라는 모토의 제 14기 결혼예비학교가 힘차게 문을 열었다. 문희삼 목사의 “하나님 나라와 신혼 가정”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전지원 강사의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이정민 강사의 “닮은 듯 다른 우리”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 박수웅 장로의 “그리스도인의 성”, 커플동작 Therapy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가정을 꿈꾸는 7커플(14명)이 3주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막연했던 가정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실천적 과제와 풍성한 먹거리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결혼 예비학교는 하반기 11월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아기나들이



오서진, 오서윤아기 2015년 11월 14일생

1.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 주님께서 부여하신 달란트를 발휘하여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3.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빠 오재권 / 엄마 김애리, 2016년 6월 19일 3부 예배

‘배달의 함글’ 서비스는 해외에도!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함글함글에서 보내드립니다!
받을 분 주소와 보내드릴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세요!

함글함글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2016년 주님의숲 교육목회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안내

부서	주제	일시 / 장소
하늘씨앗 영아부	예수님이 쏘옥 알콩달콩 사이좋게	7/10(주일) / 교회
싹트네 유아부	예수님이 쏘옥 알콩달콩 사이좋게	7/2(토) ~ 3(주일) / 교회
담쟁이 유치부	예수님이 쏘옥 알콩달콩 사이좋게	7/23(토) ~ 24(주일) / 교회
포도나무 유년부	믿음에 굳게 서요	7/22(금) ~ 24(주일) / 교회
햇살뜨락 초등부	예수파워! 무한화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7/22(금) ~ 24(주일) 덕평수련원(이천)
아름드리 소년부	너나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7/29(금) ~ 31(주일) 동서울 레스피아(원주)
팝콘트리 중등부	FunFun해져라!	7/24(주일) ~ 26(화) 가평 드림아일랜드
비전트리 고등부	세상에 교회를 세우다	7/28(목) ~ 30(토) 공주시 유구면 탑곡마을

2016 PCL Kingdom Vision English Camp

✓ 새로운 ESL 교재
✓ 창작, 요리, 미술, 과학, 체육 활동
✓ 실생활 영어회화

일시 8.1(월) - 11(목) 9:00-17:00
(주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장소 주님의교회
비용 40만원
문의 김경배 전도사(010-2782-2585)

WAY TO BASE CAMP

알립니다

1.교구별 여름수련회 일정 및 장소

7/15~16(금,토): 4,5교구(진새골)

2.유학생을 위한 특별 입교 및 세례예식

세례예식 : 7/24(주일)3부 예배시

신청대상 : 교회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유학생

교육 : 7/10,17(주일) 오후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안수집사(010.4322.9917)